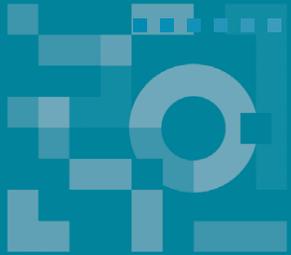


국립국어원 2010-01-78

발간 등록 번호
11-137028-000147-01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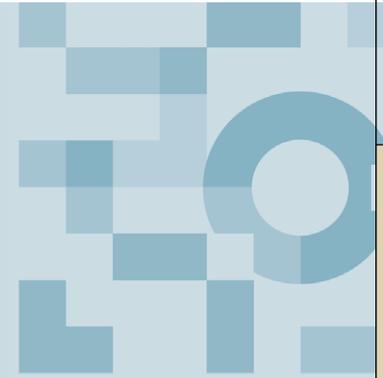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예 문 으 로 알 아 보 는 보 도 자 료 바 로 쓰 기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펴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 기관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시도 합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야말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도 자료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보도 자료에 사용된 말이 쉽고 정확할 때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고 난해해서 그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부호 용법 등 어문 규범을 어긴 경우,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한 용어가 외국어이거나 어려운 한자어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중앙 행정 기관 15부, 2처, 18청, 그리고 16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등 총 51개 기관의 보도 자료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언어 사용이 우수한 기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바른 어문 규범이 무엇인지,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단어를 어떻게 바꾸어 써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지, 문장이 바르게 구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맡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익힌다면 같은 종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정부 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정확하고 바르게 작성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바르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2010년 12월 24일 발행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01 이 책에서 예문으로 사용한 보도 자료는 실제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더하거나 빼고 또는 고쳐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02 보도 자료 교정 전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실제 기관명이나 작성자를 밝히지 않았다.

03 '교정 전' 문장에서 주어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 후' 문장에서 주어를 보충하지 않았다.
'교정 전' 문장에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생략된 주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 보도 자료 다듬기	01
• 보도 자료 쓸 때 도움받을 곳	82

교정 전

○○○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제도 확산과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정 후

○○○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장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 제도 확산과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충 설명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에서 ‘양립하다’는 ‘~을 양립하다’와 같이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말이므로 해당 표현을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으로 다듬는 것이 좋다.

직접 인용문의 조사는 ‘고’가 아니고 ‘라고’이다. 따라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로 조사를 바꾸어 써야 한다.

참고 : 간접 인용 조사와 직접 인용 조사

간접 인용 조사 ‘-고’는 종결 어미 ‘-다, -냐, -라, -자, -마’ 따위 뒤에 붙어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다.

예) 김 과장은 신입 직원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용히 말했다.

직접 인용 조사 ‘-라고’는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다. 원래 쓰인 그대로 인용됨을 나타낸다.

예) 김 과장은 신입 직원들에게 많이 “많이들 들어.”라고 권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가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교정 전	교정 후
<p>○○○ 공단 이사장은 ‘건강한 노동력 확보는 선진 일터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올해를 건강증진운동 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일터, 튼튼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공단 이사장은 ‘건강한 노동력 확보는 선진 일터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올해를 건강 증진 운동 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 운동 활성화를 추진해 건강한 일터, 튼튼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p>

 보충 설명

‘지속적으로 추진해’에서는 ‘추진하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적절한 목적어를 보충해 주어,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바꾸어 써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는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 운동 활성화를 추진해’로 고쳐 쓴다.

직접 인용문에서는 직접 인용의 조사인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한다.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 운동 활성화를 추진해 건강한 일터, 튼튼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정 전	교정 후
<p>먼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건설, 운송, 분야 종사 근로자 대상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건전 음주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는 사업장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과 자료지원, 자문을 실시한다.</p>	<p>먼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함께 건설, 운송, 분야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전 음주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금연 운동의 확산을 위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지원한다.</p>

 보충 설명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의 뒤에는 ‘함께’를 넣어 연결성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 ‘근로자 대상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은 명사구인데 그 뒤에는 서술어구가 나와서 대등한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와 같이 서술어를 지닌 문장으로 바꾸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전 음주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는’은 연결될 말이 없으므로 ‘협력하여’를 넣어서 ‘한국금연운동 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지원한다.’로 바꾸어 쓴다.

그리고 ‘자문(諮問)’은 전문가나 전문가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위 문맥에서는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교정 전 교정 후

과거 발생 사례를 볼 경우 2~6월은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시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 검역원,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방역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방역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과거 발생 사례를 볼 경우 2~6월은 구제역과 **조류 독감(AI: Avian Influenza)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6월에 있을 지방 선거 시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 검역원, 지방 자치 단체 등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 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방역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역 활동에 축산 농가와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충 설명

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를 그대로 드러내면 일반 국민들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AI 발생**'은, '**조류 독감(AI: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풀어 써 주고, 외국어 전문 용어는 괄호 안에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방역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제대로 갖춘 문장이 아니므로 어법에 맞게 '**방역 활동에 축산 농가와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로 바꾸어 쓰면 전달하려는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며 표현이 훨씬 부드러진다.

교정 전 교정 후

○○부는 **KOTRA**와 함께 '10. 2. 1.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예방교육과 투자, 조세, 금융 관련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10. 2. 1.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 투자 분쟁 예방 교육과 투자, 조세, 금융 관련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충 설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약어인 '**KOTRA**'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원래 명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쓰고 괄호 안에 영문 명칭의 약어를 병기해야 한다.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은 간략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구문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와 어미를 넣어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 풀어서 표현한다.

단위 의존 명사인 '**개**'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띄어 써야 한다.
(예 : 50여개 → 50여 개)

교정 전	교정 후
<p>여론집중도 조사는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디어 산업 진흥과 여론다양성 보장 등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특정 사업이나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p>	<p>여론 집중도 조사는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미디어 산업 진흥과 여론 다양성 보장 등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여론 형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특정 사업이나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p>

 보충 설명

교정 전 자료에서 나타나는 요지는 ‘여론집중도 조사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바를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드러내려면 ‘반영하다’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정 전의 자료에서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해당하는 목적어로서 **‘이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보도 자료에서 전달하려는 ‘여론 집중도 조사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것을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교정 전	교정 후
<p>한편,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서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여 자녀를 대신한 효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p>	<p>한편,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국민 연금은 자녀를 대신하여 노후를 대비해 주는 효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p>

 보충 설명

‘급속한 출산율 하락’이라는 명사구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는 조사 **‘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등한 문장 성분이 아니므로, 대등한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노후를 대비하여 자녀를 대신한 효자’는 부자연스러운 어순이므로 문장의 뜻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자녀를 대신하여 노후를 대비해 주는 효자’**로 바꾸면 뜻이 더욱 명확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p>이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의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함</p>	<p>이에 따라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에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함.</p>

 보충 설명

‘암에 대한 예방’은 번역 투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므로 **‘암 예방’**으로 고쳐 쓰면 더욱 간결한 문장이 된다. 또, 여기에서 **‘국민의’**라는 표현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교정 전	교정 후
------	------

<p>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미흡했던 암을 극복한 생존자에 대한 재할 및 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암의 예방, 발견, 치료, 생존자 관리, 완화의료에 이르기까지 암관리체계의 단절 없는 관리체계 완성을 목표로 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p>	<p>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미흡했던 암을 극복한 생존자의 재할 및 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암의 예방, 발견, 치료, 생존자 관리, 완화의료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는 암 관리 체계 완성을 목표로 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p>
--	---

 보충 설명

‘미흡하다’가 바로 뒤의 ‘암’이나 ‘극복’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생존자의 재할**’을 꾸며 주고 있다. 그런데 쉼표를 생략하면 마치 바로 뒤의 단어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쉼표(.)를 반드시 찍어 주어야 한다.

‘**생존자에 대한 재할**’은 번역 투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므로 ‘**생존자의 재할**’로 고쳐 써야 한다.

‘**암 관리 체계의 단절 없는 관리체계 완성을 목표로**’에서는 ‘**관리 체계**’라는 표현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으므로 ‘**단절 없는 암 관리 체계 완성을 목표로**’로 바꾸면 훨씬 간결한 문장이 된다.

‘**암관리체계**’나 ‘**관리체계**’와 같은 표현은 ‘**암 관리 체계**’나 ‘**관리 체계**’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교정 전	교정 후
------	------

<p>또한, 암발병 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암 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암의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조기 검진 등을 통해 조기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암 정복의 핵심임을 강조한다.</p>	<p>또한, 암 발병 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암 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암 정복의 핵심임을 강조한다.</p>
---	---

 보충 설명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은 호응하는 말이 없으므로 뺀다. ‘**조기 검진 등을 통해 조기 치유되도록**’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조기 검진 등을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로 고쳐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p>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 진행,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p>	<p>앞으로 분야별로 실무 접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p>
---	--

 보충 설명

조사와 어미를 지나치게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요소들을 넣어서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는 **현장 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발굴·보급하고**, ○○○○부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시범 실시 기관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실은 추진 상황 등을 총괄하여 점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는 **현장 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며**, ○○○○부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 실시 기관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며**, ○○○○실은 추진 상황 등을 총괄하여 점검하게 된다.

 보충 설명

‘**현장 사례조사**’는 명사구이고 ‘**발굴 보급하고**’는 동사구여서 접속 조사 ‘와’를 사용해서 대등하게 접속할 수 없다. ‘**사례를 조사하다**’와 같이 동사구로 바꾸어서 대등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제도의 정비**’ 역시 그 뒤에 나오는 성분과 동등하게 접속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와 같이 고쳐야 한다.

‘**~에 대하여**’ 보다는 ‘**~에**’로 바꾸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

미세먼지를 제외한 환경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 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먼지를 제외한 환경 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 설명

‘**평년 수준**’과 ‘**약간 감소한 것**’은 ‘**또는**’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등한 성분이 아니므로 ‘**평년 수준이거나**’로 바꾸어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온정적인 조직 문화와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 미온적으로 운영되어 온 **청렴신문고 제도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온정적인 조직 문화와 **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미온적으로 운영되어 온 **청렴신문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보충 설명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와 같이 명사만 계속 나열되면 뜻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뜻이 분명해지도록 필요한 요소를 보충한다.

‘**청렴신문고 제도의 운영방법을**’에서 ‘운영방법’은 ‘미온적으로 운영’이라는 앞의 표현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생략하면 간결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더 나아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되어 온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에도 부서청렴도를** 종합하여 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되어 온 승진, 보직 관리 등 **인사업무에도 부서 청렴도를** 종합하여 반영하는 **청렴 인사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보충 설명

‘**승진 보직관리**’는 ‘승진, 보직 관리’와 같이 쉼표를 쓰고 띄어쓰기를 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인사 업무, 부서 청렴도’ 등도 각각 두 개의 단어가 이어졌으므로 띄어 쓴다. ‘청렴인사시스템’에서도 ‘청렴 인사 방식’으로 띄어 쓰고 다듬어 쓰는 것이 의미를 빨리 파악하는 데에 바람직하다.

교정 전 교정 후

위민넷 연중 캠페인 “대한민국 여성의 행복을 찾아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3~5월 캠페인은, 워킹맘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 워킹맘과 가족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위민넷의 연중 캠페인인 ‘대한민국 여성의 행복을 찾아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3~5월 캠페인은, 직장인엄마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켜, 변화하는 사회 속의 직장인엄마와 가족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보충 설명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명사만 계속 나열하는 것은 딱딱한 느낌을 주어 좋지 않다. 적절한 말을 보충하여 수식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위민넷 연중 캠페인’은 ‘위민넷의 연중 캠페인인’으로,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산’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민넷 연중 캠페인’과 “대한민국 여성의 행복을 찾아서”는 동격의 문장 성분이므로 ‘위민넷 연중 캠페인’의 뒤에 ‘인’을 넣어 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확산을 통해’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므로 ‘확산시켜’로 고치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사회 속에’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사회 속의’로 고쳐 써야 한다.

보도 자료에서 외래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킹맘’과 같은 외래어는 ‘직장인엄마’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부는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절감과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54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달 시행 공고하여 집행할 계획임

○○○부는 고효율 전기 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5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달에 시행 공고하여 집행할 계획임.

 보충 설명

한자를 노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고효율’은 ‘고효율’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과 전력 수요를 줄이다’는 ‘에너지 절감’과 ‘줄이다’가 호응하여 ‘에너지 절감을 줄이다’를 뜻하게 된다. 의도하는 뜻을 나타내려면 ‘에너지를 절감하고’와 같이 동사구로 바꾸어야 한다.

‘545억원’에서 ‘원’은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그동안 자치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달라 단속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자치구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단속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 행정 전반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충 설명

‘자치구간 기준이 다르다’보다는 ‘자치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다.

‘단속 행정 전반을 재정립할 필요성’에서처럼 ‘~에 대한 재정립’보다는 ‘~을 재정립할’로 바꿀 때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출산 장려 홍보물과** 영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출산 장려 홍보물 배포와** 영아 전담 보육 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함**.

 보충 설명

‘홍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빠져 있으므로 ‘배포’와 같은 단어를 넣어야 한다. 목적어 ‘안내 및 홍보물’과 명사 ‘실시’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서술어인 ‘실시함’ 또는 ‘실시할 예정임’과 같은 표현이 와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는 음식점 내의 메뉴판 및 게시판과 풋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규정이 없어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도**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원산지를** 음식점 내의 메뉴판 및 게시판과 풋말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달 음식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보충 설명

‘일반음식점’과 ‘배달음식’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는’**이 아니라 **‘일반음식점 등에서는’**으로 바꾸어야 자연스럽다.

‘풋말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풋말에 표시’**하는 것이다. 전체 문맥과 강조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어순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도’라는 표현에서 ‘이용하다’의 목적어가 없어서 교정 후와 같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교정 전	교정 후
------	------

견인에 대해서는 2008. 4. 1.부터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30분 이내 견인 사실을 안내(문자발송, 전화)해 주고 있어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견인 조치를 할 때에는 2008년 4월 1일부터 차주에게 30분 이내에 견인 사실을 안내(문자 발송, 전화)해 주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충 설명

‘2008. 4. 1.부터’의 앞에 ‘견인에 대해서는’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견인된’은 불필요한 표현이다. ‘차량의 차주’는 ‘차주’나 ‘차량의 주인’으로 표현하면 의미의 중복이 없이 간결해진다.

‘이내’는 조사 ‘에’가 없으면 뜻이 통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	------

기존에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에 **의거** 담당직원 자체판단으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없이** 자체 내부 심의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담당직원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명확한 규정 없이 위원회를** 자체 내부 심의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보충 설명

‘의거하여’에서처럼 ‘도로교통법’에 연결되도록 동사를 온전하게 표현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자체 내부 심의위원만으로 구성하여’에서는 목적어가 없다. ‘위원회를’을 목적어로 보충하고 반복되는 어휘는 생략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시는 설 연휴기간인 2월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대형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응급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병·의원 진료와 의약품 구입 관련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였다.</p>	<p>○○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대형 사고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 의료 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병·의원 진료와 의약품 구입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였다.</p>

 보충 설명

‘발생 시’에서 ‘시’는 “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은 바로 뒤의 명사 ‘응급의료기관’을 한정하기 위한 표현 **‘위한’**을 사용하는 것보다, ‘운영하다’를 수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로 고치면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p>○○도 관계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상호 등을 위조·도용하는 위조 상품 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 과 금년 말까지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조 상품 추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도 관계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품·상호 등을 위조·도용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년 말까지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조 상품 추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보충 설명

‘위조 상품 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은 명사구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는 의미상 동사구여서 조사 **‘과’**로 대등하게 연결할 수 없다. 앞부분을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처럼 동사구로 바꾸어 주면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다.

교정 전	교정 후
<p>부서별로 추진·관리하던 각종 물 관리정보를 일원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기 위해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p>	<p>부서별로 관리하던 각종 물 관리 정보를 일원화하고 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p>

 보충 설명

‘추진’은 연결될 말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기 위해’** 보다는 **‘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	------

규모 3.0 지진은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느낄 수 있음.

규모 3.0 지진은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음.

 보충 설명

거센소리나 된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위층’**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람들에 의해서만 느낄 수 있음’은 번역 투의 어색한 표현이므로 **‘사람들만 느낄 수 있음’**으로 바꾼다.

교정 전	교정 후
------	------

차량의 차주에게 30분내에 견인 사실을 **안내(SMS, 전화)해** 주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차량 주인에게 30분 내에 견인 사실을 **안내(문자 발송, 전화)해** 주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충 설명

‘30분내에’에서 **‘내(內)’**는 의존 명사다.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이면서 일정한 범위의 안을 나타내는데 앞말과 띄어 쓴다.

‘SMS’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 발송’**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작은도서관에 제공되는 원문정보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놓어준 산간벽지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 351 개 작은도서관에서 시작되며, 이에 따른 전송료 및 저작권 보상금은 전액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게 된다.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정보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놓어준 산간벽지 **읍면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 351 개 · 작은도서관에서 시작되며, 이에 따른 전송료 및 저작권 보상금은 전액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게 된다.

 보충 설명

‘작은도서관에 제공되는 원문정보서비스’가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서비스’**이다.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읍면 지역주민에게 확대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확대(넓혀서 크게 함)와 확산(흩어져 널리 퍼짐)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으로’ 뒤에는 교정 후와 같이 쉼표(.)를 붙여 주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청(청장 ○○○)은 국내 장미 육성 연구와 국산 품종 보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청(청장 ○○○)은 국내 장미 육성 연구와 국산 품종 보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내 장미가**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보충 설명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의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어로 **‘국내 장미가’**를 보충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결과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분산 관리해 왔던 물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합리적 물 통합관리를 통해 물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행정 편익은 물론 도민에게 보다 향상된 물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p>	<p>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분산해서 관리해 왔던 물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행정 편익을 얻게 됨은 물론 도민에게 보다 향상된 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p>

 보충 설명

'동' 보다는 '이'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물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되며'의 '활용하게'의 목적어가 없어 자연스럽지 않다. '물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되며'를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게 되며'로 바꿀 때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현실적·합리적'이 '물 통합 관리' 보다 '물 관리 정책'을 수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아 어순을 교정 후와 같이 고쳤다.

교정 전	교정 후
<p>세미나 참가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p>	<p>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국 지식 재산 보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p>

 보충 설명

'참가 신청은'과 호응하는 말로는 '가능하다'보다 '할 수 있다'가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p>〇〇청 발표에 따르면 봄꽃(진달래, 개나리)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년보다 평균 5일 정도 빠르고 작년보다 3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했다.</p>	<p>〇〇청은 봄꽃(진달래, 개나리 등) 개화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년보다 평균 5일 정도 빠르고 작년보다 3일 정도 늦을 것이라고 발표했다.</p>

 보충 설명

'〇〇청 발표에 따르면'과 '늦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〇〇청 발표에 따르면'을 '〇〇청은'으로 바꾸고, 서술어도 이에 맞게 '늦을 것으로 예상했다'를 '늦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로 바꾼다.

교정 전	교정 후
<p>또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공개 토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여 기동 전력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값진 시간도 갖는다.</p>	<p>또한, 업체의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공개 토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등 기동 전력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값진 시간도 갖는다.</p>

 보충 설명

업체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의 애로점과 건의 사항'으로 바꾼다. '함께하여'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기동 전력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를 '기동 전력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로 풀어 쓰면 좀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	------

조사대상 어린이의 대부분인 **74.3%** **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고열량·저영양식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린이는 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어린이의 대부분인 **74.3%**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린이는 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 설명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린이는**’이 아니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린이는**’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교정 전	교정 후
------	------

사례집에는 '09년도 조달 품질 신문 고에 신고된 품질 하자건 중 공공기관이 알아두면 유용할 **20건을** 선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사례집에는 '09년도 조달 품질 신문 고에 신고된 품질 하자 건 중 공공기관이 알아두면 유용할 **20건이**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보충 설명

‘수록되어 있다’의 주어가 빠져 있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20건을 선별**’을 ‘**20건이**’로 바꾸면 문장이 간결해지면서 뜻이 분명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접수는 국제교류진흥원 (www.icworld.or.kr)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4대 궁 및 종묘를 주제로 발표 원고와 발표 동영상을 **작성하여** 4월 12일~17일(6일간)까지 웹하드 또는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12명을 선정한다.

신청·응모는 국제교류진흥원 (www.icworld.or.kr)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4대 궁 및 종묘를 주제로 발표 원고와 발표 동영상을 **만들어** 4월 12일~17일(6일간)까지 웹하드 또는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12명을 선정한다.

 보충 설명

‘**접수는**’으로 시작하면 접수하는 주체의 할 일이 진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행위는 신청 또는 응모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므로 ‘**접수는**’을 ‘**신청·응모는**’으로 바꾼다.

‘**홈페이지**’의 순화어는 ‘**누리집**’이다. 외래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가 있으면 순화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운 받아**’는 ‘**내려받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발표 원고’와 ‘발표 동영상’ 모두와 호응되는 말은 ‘**만들어**’다. ‘**작성하여**’는 원고와는 호응이 되지만 동영상과는 잘 호응이 되지 않는다.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되고**’의 앞에 놓인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대등적인 연결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고’로 연결하기보다는 ‘-는데’와 같은 연결 어미로 접속해 주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특히, 올해 업무 소개에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 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의사 결정 요소 구체화”, “시험 평가 업무 개념 및 절차 개선”, “국산 대체를 위한 업무 분장 및 검토 시한의 명시”, “한도액 계약 운영 지침 개정” 등 사업/계약 등 방위사업청의 **제(諸)분야에 걸친** 주요 추진 업무와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게 된다.

특히, 올해 업무 소개에는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시행 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의사 결정 요소의 구체화”, “시험 평가 업무 개념 및 절차 개선”, “국산 대체를 위한 업무 분장 및 검토 시한의 명시”, “한도액 계약 운영 지침 개정” 등 방위사업청의 **여러 분야에 걸쳐** 주요 추진 업무와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게 된다.

 보충 설명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보다는 더 알기 쉽게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바꾼다.

“제(諸)분야”는 **“여러 분야”**라는 쉬운 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걸친”** 이 꾸미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여러 분야에 걸쳐”**로 바꾸어 쉽게 이해되도록 쓴다.

교정 전	교정 후
------	------

○○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보충 설명

“논의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는 생략이 지나친 표현으로서 **“논의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보다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간명한 표현이다.

교정 전	교정 후
------	------

또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법치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 법제관 제도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법치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보충 설명

“도움을 줄”의 주어가 없으므로 교정 후와 같이 주어를 보충해 준다.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는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로 바꾸어야 띄어쓰기가 바르다.

교정 전	교정 후
------	------

○○○○○○청 운영지원과(과장 부이사관 ○○○)는 2월 24일(수) 14:00 청내 대회의실에서 최근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 분위기를 쇄신하고 **보안사고 방지와 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0년 보안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청 운영지원과(과장 부이사관 ○○○)는 2월 24일(수) 14시 청내 대회의실에서 최근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 분위기를 쇄신하고 **보안 사고를 방지하며 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보안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보충 설명

'**쇄신하고**'는 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이어지지 않아서 비문이다. 따라서 '**보안사고 방지와 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를 '**보안사고를 방지하며 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로 바꾸어 준다. '제고'는 '높이다'로 바꾼다.

교정 전	교정 후
------	------

지난 2월 2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2010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실행지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2월 24일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일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에 '2010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대한 실행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2010 재난 대응 안전 한국'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보충 설명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에는 실행 지침을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달' 하는 것이다. 또, 추진 상황은 '구체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교정 전	교정 후
------	------

출장 중인 차장을 **대리한** ○○○소장(고위공무원 ○○○)은 "**우리 청이 군부대가 아닌 정보기관이면서도 많은 군사 비밀과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상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기관보다 중요함을 **환기시키고**, 특히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안은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직원 개개인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보안관계관들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출장 중인 차장을 **대리하여** ○○○소장(고위공무원 ○○○)은 **우리 청이 군부대가 아닌 정보 기관이면서도 많은 군사 비밀을 보유하고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상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기관보다 중요함을 **환기하였다**. 특히 방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안은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직원 개개인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보안관계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보충 설명

'**대리한**'은 '**대리하여**'로 바뀌어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군사비밀과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는 '군사비밀을 운영하고'와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의 대등적 접속인데 '**군사비밀을 운영하고**'는 어색한 표현이다. 따라서 '**군사 비밀을 보유하고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로 바뀌어야 자연스러워진다. '역할'은 당부보다는 강조가 더 어울린다.
그리고 '어느 기관보다 중요함을 **환기시키고**'는 너무 긴 문장이 되므로, '어느 기관보다 중요함을 **환기하였다**.' 정도로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4. 28일부터 4. 30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과** 재난대응 인력과 장비,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어떤 재난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 대응 인력과 장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재난 현장의 통합 지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어떤 재난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충 설명

‘4. 28일부터 4. 30일까지’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써야 한다.
 ‘기반조성’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는 대등한 성분이 아니므로 접속될 수 없다. 따라서 ‘기반을 조성하고’로 바꾸어 쓰는 것이 옳다.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에서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교육 방식은 전문교관이 부서마다 직접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이론 및 방법 등을 교육한 다음, 인체와 유사하게 만든 교육용 인형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직원마다 정확하게 실시할 때까지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전문 교관이 부서마다 직접 방문하여 심폐 소생술 이론 및 방법 등을 교육한 다음, 인체와 유사하게 만든 교육용 인형과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일명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직원마다 정확하게 실시할 때까지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충 설명

‘**교육**은’이라고 할 때에 뒤에 이어지는 말과 자연스럽다. 만일 ‘**교육 방식**은’을 유지한다면 맨 끝은 ‘직접 실습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생긴 식사장에 **환자군의 선별 및**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청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양 관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건강개선 평가 등으로** 식사 습관 개선 여부를 피드백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생긴 식사장에 **환자군을 선별하고**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영양 관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건강 개선 평가로** 식사 습관 개선 여부를 피드백 받을 예정이다.

 보충 설명

‘환자군의 선별’을 개발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군을 선별하고’로 바꾸어 준다.
 ‘교육청과의 연계 등’, ‘건강개선평가 등’은 각각 두 항목 이상 제시한 후에 ‘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항목밖에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면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교정 전	교정 후
<p>물자 및 공사대금의 즉시 지급, 중소기업의 계약관련 애로사항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설 연휴 전 ○○청의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p>	<p>물자 및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관련 애로 사항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설 연휴 전 ○○청의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p>

 보충 설명

앞부분은 **‘즉시 지급’** 이고 뒤는 **‘애로사항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어서 대등한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앞부분을 **‘즉시 지급하고’** 로 바꾸어서 뒤와 대등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참가대상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다소 통계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마이크로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p>	<p>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데, 다소 통계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마이크로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p>

 보충 설명

‘참가대상은’ 에 연결될 말이 보이지 않아 어색하다. 따라서 ‘참가대상은’ 이라는 표현 대신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바르다.
또한 **‘응모가능하며’** 와 같이 대등적인 연결은 뒷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앞뒤의 문장이 대등적인 연결이 아니고, 인과를 나타내는 종속적인 연결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모할 수 있는데’** 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교정 전	교정 후
<p>위 심사기준개정과 관련하여 ○○청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공학분야의 특허 이슈들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포함하였으므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 및 국제 조사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위 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청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 공학 분야의 특허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포함하였으므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 및 국제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출원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보충 설명

‘일관성 유지와’ 에 연결될 적절한 말이 없다. 따라서 **‘일관성 유지와’** 를 **‘일관성을 유지하고’** 로 바꾸어야 바른 호응 관계로 전환된다.

교정 전	교정 후
<p>이번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법제관 출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이번 ‘청소년 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 법제관 출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보충 설명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할 때에 조사 ‘에게’ 를 써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으로 바꾼다.

교정 전	교정 후
------	------

국제사회에서의 정보화 표준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특허정보의 표준 경쟁은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 및 특허 전쟁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인프라로서 선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다.

국제 사회에서 정보화 표준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특허 정보의 표준 경쟁은 치열한 기술 개발과 특허 경쟁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으로서 선진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보충 설명

‘기술 개발 경쟁 및 특허 전쟁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기술 개발과 특허 경쟁에서’로 바꾸어 써야 한다.

‘선진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다’는 번역투 표현으로서 어색하다. ‘선진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간’은 의존 명사로서 띄어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박물관에서는 2.13.(토) 오후 3시에 전통타악공연이 열리고 2.15.(월)까지 전통민속놀이 체험 코너도 운영한다.

○○박물관에서는 2. 13.(토) 오후 3시에 전통 타악 공연이 열리고 2. 15.(월)까지 전통 민속 놀이 체험 코너도 운영된다.

 보충 설명

‘전통타악공연이 열리고’에 호응하는 표현은 ‘운영한다’가 아니고, ‘운영된다’이다. ‘열리고’는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대등한 피동 표현으로 ‘운영된다’라고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해양경찰은 설 명절 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단순 위반 등 생계 유지형 사범에 대하여는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먹을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 행위 및 민생침해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 경찰은 설 명절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단순 위반과 같은 생계 유지형 사범에 대하여는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먹을거리 범죄와 같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 행위 및 민생 침해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충 설명

‘단속활동 등’에 호응할 말이 없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단속활동을 하는 등’으로 풀어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최근 졸업식의 알몸 뒷풀이 등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졸업식의 알몸 뒤풀이 같은 청소년들의 준법 의식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법제관 제도가 청소년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충 설명

사이시옷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뒷풀이’가 아니라 ‘뒤풀이’이다.

‘법치주의를 이해하면’의 주어가 없는데 ‘청소년들이’를 보충하면 문제가 해소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청장은 “국토의 4.5배의 광활한 영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바다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는 ○○○○청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였다.”고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 청장은 “국토의 4.5배인 광활한 영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바다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는 ○○○○청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였다.”라고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보충 설명

‘의’ 라는 관형격 조사가 여러 번 중첩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국토의 4.5배의 광활한 영역의’ 에서 ‘의’ 의 중첩으로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졌다. 따라서 ‘국토의 4.5배인’ 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양주권 수호와 바다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에서는 ‘해양주권수호와’ 에 대등하게 연결될 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로 바꾸어야 한다.

‘보호하기위해’ 는 ‘보호하기 위해’ 로 띄어 써야 한다.

‘국내외적인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는’ 에서 ‘국내외적인’ 을 ‘국내외적으로’ 로 고쳐 써야 자연스럽다.

직접 인용문의 조사는 ‘라고’ 이다. ‘고’ 는 간접 인용문의 조사이므로 ‘라고’ 로 바꾸어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특히, 지난 2009년을 ○○○○청 ‘연안해역 안전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 하고, 그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청으로 일원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사고 발생을 전년대비 50% 감소)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해양긴급번호 122 운영을 통한 해양사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고 시 대응시간 및 인명 피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국민들의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은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연안 해역 안전 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한 2009년의 성과를 칭찬하며, 2009년은 국민들의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은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청으로 일원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사고 발생률 전년 대비 50% 감소)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해양 긴급 번호 122 운영을 통한 해양 사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고 시 대응 시간 및 인명 피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보충 설명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긴 문장은 끊어서 단문으로 정리해야 하며, 일반적인 진술을 앞에 놓고, 구체적인 진술은 뒤에 하면 의미가 선명해진다.

‘률(率)’ 은 앞 음절의 끝소리가 ‘ㄴ’ 이나 ‘모음’ 이면 ‘을’ 로 쓰지만 그 외 자음에서는 반드시 ‘률’ 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발생율’ 은 ‘발생률’ 로 고쳐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 의견 제안 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p>	<p>로스쿨 법제관 코너는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 의견 제안 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p>

 보충 설명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의 주어가 없다. 주어 없이도 뜻을 파악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를 **'로스쿨 법제관 코너는'**으로 바꾸어 주면 문장이 반듯해지면서 쉽게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p>○○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 설 대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기간으로 정했다.</p>	<p>○○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을 설 대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p>

 보충 설명

'13일간'에 조사 **'을'**을 넣어야 **'대책기간으로 정했다'**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교정 전	교정 후
<p>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난달 22일 "설 대비 물가대책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등 총24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하고,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급량을 파악하여 축산물 87,952두, 수산물 617톤을 공급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p>	<p>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달 22일 '설 대비 물가 대책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총 24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하고, 축수산물은 수급량을 파악하여 축산물 87,952두, 수산물 617톤을 공급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다.</p>

 보충 설명

'농축수산물 등'은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라고 하든지 **'농축산물, 수산물 등'**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반사례가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와 같은 문장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라고 바꿀 때에 비로소 문법적으로 완전해지고 뜻도 쉽게 이해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식과 식문화의 우수성 및 녹색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한국 전통 음식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음식과 식문화의 우수성 및 녹색 식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충 설명

‘하나로’ 다음에는 쉼표(.)를 써야 뜻을 파악하기 쉽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가 더 적절하다.

‘한국전통음식학교’의 바른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한국 전통 음식 학교’**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로 바꾸면 간결해지면서 뜻은 더 쉽게 이해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

프로그램은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각 시설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보충 설명

‘**홈페이지**’는 ‘**누리집**’으로 순화했으므로 ‘**홈페이지**’ 대신에 ‘**누리집**’을 쓴다.

교정 전	교정 후
------	------

제17회 방재의날(5.25)을 맞이하여 **도민의 방재의식 고취와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표어, 포스터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7회 **방재의 날(5. 25.)**을 맞이하여 **도민의 방재 의식과 방재 역량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충 설명

‘**도민의 방재의식 고취**’와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는 대등한 성분이 아니어서 접속될 수 없다. 따라서 **‘도민의 방재 의식과 방재 역량을 높이고’**로 바꾼다. **‘도민의 방재 의식을 고취하고 방재 역량을 강화하며’**라고 바꾸어도 좋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구입한 농산물이 **부패됐거나 훼손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사고**는 물론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구입한 농산물이 **부패하였거나, 훼손된 농산물을 섭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물론,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보충 설명

‘**농산물이 부패됐거나**’와 호응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뒷 부분을 **‘훼손된 농산물을 섭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로 바꾸고, ‘물론’ 뒤에 쉼표(.)를 넣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도와 몽골은 2006년 ○○시와 울란바토르 노선취항을 시작으로 2009년 8월에는 몽골사막화 방지사업 **지원 협의와** 증평에 **소재한** 바이오 벤처 기업 (주)Fnp사와의 **바이오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도와 몽골은 2006년 ○○시와 울란바토르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2009년 8월에는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 **지원을 협의하고** 증평에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 (주)Fnp사와의 **바이오 기술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보충 설명

'지원협의'와 '바이오기술협력 MOU를 체결'은 대등한 성분이 아니어서 접속될 수 없다. 따라서 앞부분을 '**지원을 협의하고**'로 바꾼다. 뒷부분도 '**MOU를 체결**,'로 하기보다는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으며**'로 바꾸는 것이 좋다.

교정 전	교정 후
------	------

또한 **영어교육도시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금년 10월에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21세기는 아시아 **청소년으로 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 청소년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영어 교육 도시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21세기는 아시아 **청소년으로 부터**"라는 **주제로** 아시아 청소년 포럼을 개최한다.

 보충 설명

'**영어교육도시 유학생 유치**'는 명사구만 나열된 구조로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풀어 써야 한다. 조사끼리는 붙여 쓴다. 따라서 '**청소년으로부터**'라고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유치한 것으로**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인에게** 당당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유치한 것으로**,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의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보충 설명

위의 문장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장애인 연대에서 유치했는데, 이를 통해서 여성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중심어이므로 이를 문장의 맨 앞에 두는 것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명사형의 어구 나열은 의미의 이해에 방해가 되므로 풀어서 쓰는 것이 좋다.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 장애인에게**'에서 '**여성 장애인에게**'는 그 뒤에 호응할 말이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로 바꾼다.

'**사회참여 확대 기반**'은 무슨 내용인지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 참여의 기반을 확대하고**'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

교정 전	교정 후
<p>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은 <u>운영 및 관리의 품질개선 활동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습, 종목별 동호인 클럽이 즐겨 찾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 교실은 수영, 요가, 아쿠아로빅, 밸리댄스, 나이트댄스,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으로 운영된다.</u></p>	<p>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은 <u>운영 및 관리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습을 실시하고, 종목별 동호인 클럽이 즐겨 찾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영, 요가, 아쿠아로빅, 밸리댄스, 나이트댄스,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의 체육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u></p>

 보충 설명

앞에 표현된 문장 성분과 비교해서 뒤에 대등한 성분이 이어지지 않아 뜻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명사를 써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동사로 표현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운영 및 관리의 품질개선 활동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습, 종목별 동호인 클럽이 즐겨 찾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는 “운영 및 관리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습을 실시하고, 종목별 동호인 클럽이 즐겨 찾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라고 바꾸는 것이 부드럽다.

‘체육교실’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소속되어 개설되는 것이므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대등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혼란스러워진다. ‘수영, 요가, 아쿠아로빅, 밸리댄스, 나이트댄스,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의 체육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정 전	교정 후
<p>○○시장은 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므로 <u>설 연휴 대비, ‘시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u></p>	<p>○○시장은 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므로 <u>설 연휴에 대비해 ‘시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u></p>

 보충 설명

‘대비’, ‘수립’ 만으로 끝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대비해’, ‘수립하여’로 바꾼다.

교정 전	교정 후
<p>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u>일회성이고도 퍼주기식의 비생산적인 사업이</u> 추진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 점검 및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p>	<p>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u>일회성의 비생산적인 사업이</u> 추진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 점검 및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p>

 보충 설명

‘일회성이고도 퍼주기식의 비생산적인 사업’은 쉽게 해석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일회성의 비생산적인 사업’ 또는 ‘일회성의 퍼주기식 사업’으로 간명하게 바꾸어 준다.

교정 전	교정 후
------	------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수강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각 시설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보충 설명

'수강 신청 접수'는 '수강 신청'으로 바꾸면 간결해지면서 뜻이 분명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 시장은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서민경제 안정 추진과**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전에 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 시장은 특히, **취약 계층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하는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명절 전에 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할 것을** 지시했다.

 보충 설명

'체불임금 해소 등'에 걸릴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서민경제 안정 추진'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말은 동사로 바꾸어 주어야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다.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도 복잡하다.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또는 더 줄여서 '위로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할 때에 간결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또한, "우리지역 **대학졸업생이 전공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개발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및 실업 해소를 위해 기존인력 활용 보다는** 신규인력 모집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학 졸업생의 전공과 연계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용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신규 인력을 모집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보충 설명

"전공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개발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는 명사구가 나열되어 읽기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전공과 연계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라고 고치면 글의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문장을 쓸 때 명사보다는 동사를 씬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과'를 거꾸 사용하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는 동어 반복이므로 '**양질의 서비스**'로 바꾼다. 직접 인용문의 조사는 '**라고**'이다.

교정 전	교정 후
<p><u>'아이 돌보미 사업'</u>은 0세(3개월)~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야근, 출장, <u>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아이돌보미</u>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u>아이돌보미를</u> 지원함으로써 <u>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u></p>	<p><u>'아이 돌보미 사업'</u>은 0세(3개월)~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야근, 출장, <u>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 돌보미</u>가 필요한 가정에 <u>아이 돌보미를</u> 지원함으로써 <u>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u></p>

 보충 설명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아이 돌보미'가 바른 표기이다.

'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아이돌보미'에서 '발생하는'은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뒤에 오는 '필요한 경우'의 '경우'도 불필요한 부분이다. 삭제하면 문장을 간결하게 쓸 수 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로 고쳐 주어야 한다. 앞뒤의 문장이 인과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소하여'로 쓰는 것이 옳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의 뒤에 연결될 말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의 문장을 살펴보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경감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교정 전	교정 후
<p>이에 따라 ○○도는 설을 맞이하여 <u>이처럼 저렴한 신선한 전통시장의 주요 농·축·수산물</u>을 적극 홍보하는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u>한 달 간</u>을 설맞이 활성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시·군 및 시장상인회별 캠페인과 장보기 활동,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p>	<p>이에 따라 ○○도는 설을 맞이하여 <u>전통시장의 저렴한 신선한 주요 농·축·수산물</u>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u>한 달간</u>을 설맞이 활성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시·군 및 시장상인회별 캠페인과 장보기 활동, 홍보 행사 개최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p>

 보충 설명

"이처럼 저렴한 신선한 전통시장의 주요 농·축·수산물을 적극 홍보하는등"에서 '이처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등'은 의존 명사로서 띄어 써야 한다.

'전통시장의'는 앞 부분에 놓여야 할 중심어 성분이므로 '전통시장의 저렴한 신선한 주요 농·축·수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등'으로 바꾸어 주면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진다.

'저렴하고 신선한 전통시장의 주요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면 '저렴하고 신선한'이 전통시장을 꾸미는지 농·축·수산물을 꾸미는지 금방 이해되지 않으므로 어순을 바꾸어 '전통시장의 저렴한 신선한 주요 농·축·수산물'로 하면 뜻이 쉽게 이해된다. 기간을 나타내는 '-간'은 의존 명사가 아니고,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교정 전	교정 후
<p><u>‘무엇보다 중요한 것은’</u>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u>농민들이</u> 영농기를 대비한 행위로 기상여건이 매우 불리한 3~4월에 집중되어 자칫 동시다발로 일어나·대형 화재가 우려되기 때문에 <u>사전 예방 차원에서</u> 소각금지 기간을 설정하였다</p>	<p><u>‘무엇보다’</u>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영농기를 대비한 행위로 기상 여건이 매우 불리한 3~4월에 집중되어 자칫 동시다발로 일어나 대형 화재가 우려되기 때문에 <u>예방</u> 차원에서 소각 금지 기간을 설정하였다.</p>

 보충 설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에 호응할 말이 없으므로 ‘무엇보다’로 바꾼다.
‘농민들이’는 호응할 말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사전예방 차원에서’에서 ‘사전’은 ‘예방’과 중복되므로 빼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산불예방전문진화대 1,170명을 주축으로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반을 운영하여 마을별로 사회단체, 청년회, 부녀회 등 주민들과 공동으로 <u>농산쓰레기 등 인화물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u>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p>	<p>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1,170명을 주축으로 산림 연접지 인화물 제거반을 운영하여 마을별로 사회단체, 청년회, 부녀회 등 주민들과 공동으로 <u>농산 쓰레기를 비롯한 인화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u>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p>

 보충 설명

‘농산쓰레기 등 인화물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라고 하면 부자연스럽다. ‘농산 쓰레기 등’은 ‘농산 쓰레기를 비롯한’으로 고치고 ‘수거를 실시하여’는 ‘수거하여’로 간결하게 고치면 좀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p>최근 <u>대형마트들의 앞 다툼 입점으로</u> <u>중소유통상인과 대형마트 뿐만아니라 대형마트간 경쟁 역시 한층 심화되어</u> <u>가고 있는 춘천지역에서</u> 전통시장 등의 중소 유통 상인들이 틈새시장을 확보하면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p>	<p>최근 <u>춘천 지역에 대형 마트들이 앞다퉈</u> <u>입점하여 중소 유통 상인과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데,</u> 전통시장 등의 중소 유통 상인들이 틈새 시장을 확보하면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p>

 보충 설명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 ‘춘천 지역’이므로 ‘춘천 지역’을 앞으로 내어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한다. 또 ‘대형마트들의 앞 다툼 입점으로’는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입점하여’로 풀어 쓰면 더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p>진해서는 <u>설 연휴기간을 맞이하여</u> <u>지나치게 많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와 전국적으로 지역간 민족 대이동 등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시 확산의 우려가 있어</u> <u>시민들이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설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u></p>	<p>진해서는 <u>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지역간 이동이 많고, 음식물의 조리과 보관이 잘못되어 전염병이 발생하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u> <u>시민들이 올바른 조리과 보관법으로 설 명절을 건강하게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u></p>

 보충 설명

명사구가 많이 나열된 부자연스런 문장이다. 부적합한 어휘는 삭제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듬어 준다.

교정 전 교정 후

한편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이 낮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충 설명

'4,934만명'에서 '명'과 같은 수 단위 의존명사는 앞에 나오는 수사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앞에 올 경우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4,934명일 경우 4,934명과 4,934명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4,934만 명의 경우는 '만'과 '명'을 띄어 써야 한다.

참고

'마리', '벌', '자루', '컬레' 등을 단위 의존명사라 하는데, 앞에 나오는 수사와 띄어 써야 한다.

'감소하기 시작'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로 바꾸어 주는 것이 읽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준다.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경제 활력이 낮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바뀌야 문장이 부드럽워진다. 지나친 명사구의 연결은 부자연스런 문장을 낳게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한편, **출산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국민 연금은 자녀를 대신하여 노후를 대비해 주는 **효자로 씨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국민 연금은 자녀를 대신하여 노후를 대비해 주는 **효자로 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충 설명

선율(旋律), 비율(比率)의 예에서처럼 률(律, 率)은 'ㄴ'과 모음 뒤에서 '울'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률**'이 아닌 '**출산율**'이 바른 표기이다. '로서'와 '로써'도 구별해야 한다.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고, '**로써**'는 수단을 나타내므로 '로서'로 표기해야 바르다.

교정 전 교정 후

○○○청(청장 ○○○)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2월 24일부터 일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청장 ○○○)은 운전면허를 **좀더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2월 24일부터 일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충 설명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다. '적은 비용'은 자연스럽지만 '간편한 비용'이라는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상반기 자진신고 기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①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②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③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다.</p>	<p>상반기 자진 신고 기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①학교 폭력 서클을 구성하였거나 서클에 가입한 학생,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②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③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등이다.</p>

 보충 설명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것이다. 단어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문법 단위이므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단어는 대개 품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조사를 제외한 각각의 품사들은 띄어 써야 한다.

‘**초·중·고교 재학중이거나**’에서 ‘중’은 일부 명사 뒤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는 동안’의 뜻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인데 앞에 나온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서클을 구성하거나**’는 자연스럽지만 ‘**서클을 가입하거나**’는 어색하다. 따라서 ‘서클을 구성·가입하다’는 ‘**서클을 구성하거나 서클에 가입하다**’로 분리해서 표현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이번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법제관 출신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이번 ‘청소년 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 법제관 출신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보충 설명

‘**뿐**’은 명사 뒤에 올 경우 접미사로서 앞의 단어와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을’, ‘-리’와 같이 관형형 어미가 오는 경우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접미사: 너**뿐**만 아니라, 사과**뿐**만 아니고
 의존 명사: 그는 너그러운 **뿐**만 아니고 지혜로웠다.

교정 전	교정 후
<p>○○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조직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2002년부터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p>	<p>○○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월 조직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p>

 보충 설명

‘**조성하고**’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는 접속될 수 있는 대등한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또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로 바꾸어 준다.

교정 전	교정 후
<p>온정적인 조직 문화와 고발자 신분 상 불이익 등을 우려 미온적으로 운영되어 온 청렴신문고 제도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p>	<p>온정적인 조직 문화와 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미온적으로 운영되어 온 청렴신문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p>

 보충 설명

‘불이익 등을 우려’는 **‘불이익 우려 때문에’**와 같이 고치면 한결 매끄럽다.
‘-상’은 여기에서 접미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상’**은 한자의 ‘上’에서 시작되었으나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보태기도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p>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발표한 ‘학부모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을 계기로 2010년 1학기부터 학교 교육에 학부모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발표한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를 계기로 2010년 1학기부터 학교 교육에 학부모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보충 설명

‘동 사업을 계기로’는 **‘이를 계기로’**로 바꾸면 딱딱한 문장에서 부드러운 문장으로 바뀌게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p>이는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p>	<p>이는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p>

 보충 설명

‘로써’는 앞에 나온 명사의 문맥적 의미가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제도로서’**가 어법에 맞는 표기이다.

교정 전	교정 후
<p>학부모회가 직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희망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요에 맞는 강사 등을 지원해 준다.</p>	<p>학부모회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수요 조사를 할 때 희망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요에 맞는 강사 등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p>

 보충 설명

‘직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직접 학부모들에게’** 정도로 바꾸면 훨씬 부드러워진다. 학부모들에게 수요 조사를 할 때 신청된 프로그램을 학부모회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원해 주는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 후 문장에서는 그 주체를 잠정적으로 ‘교육부’로 보고 **‘(교육부에서)’**라고 표현했다.

교정 전	교정 후
------	------

건전 음주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자료를 지원한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할 모범적인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충 설명

'건전 음주 모범 사업장'은 명사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할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바꾸면 의미 전달이 명료해진다.
 '자료를 지원한다'는 표현은 앞에 나온 '예정이며'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도로 바꾸면 올바른 대응 관계가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

특히,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교장·교감간의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인사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교육 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교장·교감 간의 순환 인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 비리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이다.

 보충 설명

'교장·교감간의'에서 '간'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간'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나타내거나 일부 명사 뒤에서 '관계'의 뜻을 나타낼 경우 의존 명사로 분류되어 띄어 쓴다.

교정 전	교정 후
------	------

○○○ 장관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 비리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수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학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교육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 장관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 비리뿐만 아니라 시설 공사 수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학교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교육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보충 설명

'비리 뿐만 아니라'에서 '뿐만'은 명사 뒤에 쓰이면 조사이므로 '비리뿐만 아니라'로 붙여 써야 한다.
 '이러한 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했다.'에서 '모든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은 동사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동사로 표현된 앞 부분과 균형이 맞는다. 따라서 '모든 교육 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또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 협력해야 함을'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교정 전	교정 후
또한 마이크, 노트북, 프로젝터 등을 <u>이용한 전자적 변론과 속기사 속기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u>	또한 마이크, 노트북, 프로젝터 등을 <u>이용해서 전자적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속기사 속기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u>

 보충 설명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 변론'이 아니고 '속기사의 속기 내용'이므로 '전자적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속기사 속기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이용한'은 '이용해서'로 어미를 문맥에 맞게 고쳐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u>산불예방전문진화대</u> ' 1,170명을 주축으로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u>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u> ' 1,170명을 주축으로 산림 연접지 인화물 제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충 설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로 붙여 쓰면 한눈에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의미 단위별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로 띄어 쓰면 의미 파악이 훨씬 쉬워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u>일련의 부정·비리들이</u> 관련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u>비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징계와 함께</u> , 인사, 예산운영, 학교 경영 등 전체적인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u>일련의 부정·비리들을</u> 관련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u>비리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징계하고</u> 인사, 예산 운영, 학교 경영 등 전체적인 업무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충 설명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를 선택한다. '진단하다'의 목적어가 되기 위해서는 '비리들이'가 '비리들을'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주술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처벌'이라는 명사보다는 '처벌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비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징계와 함께'는 '비리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징계하고'라고 고쳐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이것은 남북한의 언어, 문화, 가치관, 교육과정의 차이 등으로 <u>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선택에 고민하는 탈북 청소년들의</u>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남북한의 언어, 문화, 가치관, 교육 과정의 차이 등으로 <u>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어려움</u>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충 설명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선택에 고민하는 탈북 청소년들의'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이라고 표현해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탈북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친밀감을 나타내는 다듬은 말인 '새터민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로선택에 고민하는'은 어색하므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또는 '진로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으로 바꾼다.

교정 전	교정 후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u>지속적이고도 생산적인 일자리를</u>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u>생산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u>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보충 설명

'지속적이고도 생산적인 일자리를'은 '생산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로 바꾸어 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부(장관 ○○○)는 <u>국무총리실 등 7개 부처와 함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유괴·납치 사건과 성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른</u>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 <u>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u> '을 위하여 총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u>대폭 확대하기로</u> 발표하였다.	○○부(장관 ○○○)는 <u>초등학교 어린이의 유괴·성폭력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u>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u>국무총리실 등 7개 부처와 함께 총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u> 발표하였다.

 보충 설명

원래의 문장은 어순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리고 '대폭 확대하기로'의 목적어가 없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다'의 동사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 또 '높아짐에 따른'이 꾸밈 말이 보이지 않으므로 '높아짐에 따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는 잘못된 문장이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로 바꾸든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위 문맥에 맞다. 또 '알리는 일, 알리는 장비, 알리는 사람' 등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도 '알리미'가 아닌 '알림이'로 써야 맞다.

교정 전	교정 후
○○부 공모 광역 새일 지원본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u>잇단</u> 유치	○○부 공모 '광역 새 일 지원 본부'·'여성 장애인 어울림 센터' <u>잇단</u> 유치

 보충 설명

'잇달다'의 활용이므로 '잇단'이 바른 표기이다.

교정 전	교정 후
------	------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상황임**을 학부모 휴대폰으로도 자동으로 전송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이 **휴대 전화 단말기의 비상 단추**를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이라는 사실**이 학부모 휴대 전화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보충 설명

단말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무슨 단말기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단말기'를 '휴대 전화 단말기'로 바꾸는 것이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긴급상황임을 학부모 휴대폰으로도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긴급 상황이라는 사실이 ~ 전송된다**' 또는 '**긴급 상황임이 ~ 전송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담과 **진료안내등**이 필요할 때에는 국번없이 전화 1339, 365복지콜센터 1577-0365, 시·군보건소를 이용하면 24시간 진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상담과 **진료 안내 등이** 필요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39, 365복지콜센터 1577-0365, 시·군 보건소를 이용하면 24시간 진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충 설명

'**진료안내등**'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바른 띄어쓰기는 '**진료 안내 등이**'가 되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학부모가 확인 가능하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학부모 조직을 이용한 '등하교도우미제'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원 봉사자와 학부모 조직을 이용해 '등하교도우미제'도 **함께** 운영한다.

 보충 설명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학부모가 확인 가능하며**'는 '**학부모는 자녀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로 고칠 때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어순이 어색한 문장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고쳐 준다.

'도우미'는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쓴 말인데, '행사 안내를 맡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요원'을 가리키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이번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 1학기부터 학교교육에 학부모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2010년 1학기부터 학교 교육에 학부모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충 설명

'**시작해서**'는 의미적으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계기로**'로 바꾸면 더욱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이에따라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되 기상특보가 호우주의보(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일 경우 사전대비단계로 11개반 30명, 호우경보(12시간 강우량이150mm이상)일 경우 비상단계로 11개반 48명이 비상근무토록하여 재난 발생시 관련 기관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연중무휴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되 기상 특보가 호우주의보(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일 경우 사전 대비 단계로 11개 반 30명, 호우경보(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일 경우 비상단계로 11개 반 48명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 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보충 설명

'이에따라'는 '이에 따라'와 같이 띄어 써야 올바르다.
'상황관리체제'는 '상황 관리 체계'로 '재난종합 상황실'은 '재난 종합 상황실'로 '사전대비단계'는 '사전 대비 단계'로 띄어 써야 한다.
이렇게 띄어 쓰도록 하는 이유는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개반'에서 '반'은 단위 의존 명사로서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지만 숫자 뒤에 다른 말이 오면 띄어 써야 한다. '발행시'와 '기관간'에서 '시(時)'와 '간(間)'은 명사 뒤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위원장은 설립 취지문에서 “경마는 인류 역사상 최고 레저스포츠이면서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한국마사회와 상호 연락하고 현실성 있는 상의를 거쳐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달 21일 광주를 방문한 ○○○ 한국마사회 회장을 면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에 제5경마장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위원장은 설립 취지문에서 “경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레저 스포츠이면서 지역 경제에 수천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한국마사회와 상호 연락하고 현실성 있는 상의를 거쳐 경마장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며 “지난달 21일 광주를 방문한 ○○○ 한국마사회 회장을 면담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남에 제5경마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보충 설명

'최고'는 앞에 나온 '인류 역사상'이라는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오래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한다.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에서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고, 어순이 자연스럽지 않다. 띄어쓰기는 '수천억 원'으로 고쳐 써야 하고, 자연스러운 어순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수천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로 바꾸어 써야 한다.
'유치하는데'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국마사회장을 면담'에서 처럼 명사로 끝을 맺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면담하고'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다하겠다.”며 “.....있다.”고 밝혔다.]처럼 큰따옴표로 인용하는 문장에서 직접 인용문 뒤에 '며', '고'를 쓰는 것은 맞지 않으며, 차례대로 '라고 했으며', '라고'로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시·군보건소를 이용하시면 24시간 진료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시·군 보건소를 이용하면 24시간 진료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충 설명

'이용하시면 24시간 진료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에서처럼 청자를 높이지 않는 어투에서 굳이 주체를 높이고 있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용하면 24시간 진료 안내를 받을 수 있다.'처럼 간결한 표현이 자연스럽다.

교정 전	교정 후
------	------

○○○ 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시설에 필요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센터를 기존 6개시에 이어서 8개 군에도 설치·운영한다.

○○○ 도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 센터를 기존 6개 시에 이어서 8개 군에도 설치·운영한다.

 보충 설명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시설에 필요한 편의증진을 도모'라는 표현에는 '촉진', '도모'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도로 바꿔 주면 훨씬 쉬운 말이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칼라룸푸르 : UNITAR 지역훈련센터(CIFAL) 소재, 7월에 제주에 설치되는 CIFAL과 네트워크 구축 기대

쿠알라룸푸르 :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지역훈련센터(CIFAL) 소재, 7월에 제주에 설치되는 지역훈련센터(CIFAL)와 이곳의 지역훈련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기대됨.

 보충 설명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Kuala Lumpur'의 바른 외래어 표기는 '쿠알라룸푸르'이다. UNITAR나 CIFAL와 같은 외국어 약어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표기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 시 ○○ 구에 사는 박○○(43세) 주부모니터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퇴근이나 귀가가 늦은 맞벌이 부부에게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들었다.

○○ 시 ○○ 구에 사는 박○○(43세) 주부 모니터는 육아 곤란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퇴근이나 귀가가 늦은 맞벌이 부부에게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들었다.

 보충 설명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가 아니고 '원인이 되는'으로 바꾸면서 심표(.)를 찍어 주면 의미 전달이 명확해진다. 맞벌이 부부는 육아 곤란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데, 6시까지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주부 모니터 요원이 주위에서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교정 전	교정 후
------	------

○○ 광역시에서는 **2010.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선진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제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 광역시에서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앞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선진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 명품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식품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충 설명

'**2010. 11월 중**'은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였다. 연도에 점을 찍었으면 달에도 점을 찍어야 하는데, 점을 찍는 것보다 '**2010년 11월**'처럼 '년'과 '월'을 기입하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제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은 선진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국제 명품 도시라는 위상'이라고 하든지 더 간결하게 '**선진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 명품 도시의 위상**'이라고 다듬는 것이 좋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므로 어미로 '**는**'이 아닌 '**은**'이 와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사이트 구성에서도 청소년들의 관심과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 사회·교육·문화 등으로 구분해 새로운 기사를 **매월 50여건씩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사이트를 구성할 때도 청소년들의 관심과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 **사이트**를 사회·교육·문화 등으로 구분해 새로운 기사를 **매월 50여 건씩 실을** 계획이다.

 보충 설명

구분하는 대상을 밝혀 주는 것이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준다. '**업데이트**'라는 외래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표현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편집장으로 활동하게 된 **김○○(○○여고 2)양**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새로운 청소년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집장으로 활동하게 된 **김○○(○○여고 2) 양**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새로운 청소년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충 설명

'**정착시키는데**'의 바른 띄어쓰기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정착시키는 데**'로 표기해야 한다.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는 간접 인용이되 인용 부분을 작은따옴표로 강조하여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로 표현하는 방식과 직접 인용으로 큰따옴표를 써서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교정 전의 '는'은 교정 후의 '라고'로 고쳤는데, '는'을 그대로 쓸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써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성공한 빛축제 모델인 리옹 빛축제의 국제적인 스케일에 ○○만의 역사와 색깔을 살린 **컨셉트**로 ○○지역 전체가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공한 빛 축제 모델인 리옹 빛 축제의 국제적인 스케일에 ○○만의 역사와 색깔을 살린 **컨셉트가 결합되어** ○○지역 전체가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충 설명

'**~에 ~으로**'가 아니고, '**~에 ~이 결합되어**'라는 구문으로 바꿔 줘야 한다. 바른 외래어표기는 '**컨셉트**'가 아닌 '**콘셉트**'다. '**고**'는 직접 인용 조사 '**라고**'로 바꿔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이번 공모전은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어린이 공원(공간 및 조경계획, 공원 내 도입시설 등)과 일반 가로시설물(교통카드충전소, 자전거 보관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장소 및 공공 시설에 대한 **시민의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어린이 공원(공간 및 조경 계획, 공원 내 도입 시설 등)과 일반 가로 시설물(교통카드 충전소, 자전거 보관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충 설명

'**시민의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는 '**시민의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로 바꾸면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信나는 학습클리닉>**은 학습 동기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信) 나는 학습클리닉>**은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보충 설명

'학습 동기를 갖고'의 주어가 없어서 명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어인 **'학생들이'**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세우는 데'**로 표기해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지금까지는 **국민 누구나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추후 시행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지금까지는 **소정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국민 누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충 설명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라는 주어이면서 문장 전체의 화제를 문두에 놓으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국가자격증'에서 『』(겹낫표)는 일반적으로 책의 제목에, 그리고 세로글씨에서 큰따옴표 대신에 사용하는 문장 부호이다. 강조를 위한 문장 부호는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국민 누구나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보다는 **'소정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국민 누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로 어순을 바꾸는 것이 좋다.

교정 전	교정 후
<p>○○도는 “○○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 2년만에 27억원이상 판매되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실질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통되어 가고 있는 만큼, 설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품권 홍보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문화관광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p>	<p>○○도는 “○○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한 지 2년 만에 27억 원 이상이 판매되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실질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설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품권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문화 관광 시장 육성, 상인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이다.</p>

 보충 설명

'**발행 2년만에 27억원이상이 판매되어**'에서는 먼저 띄어쓰기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27억원이상'이 아니라 '27억 원 이상'으로 표기해야 옳다. 아라비아숫자 뒤에 '**원**'과 같은 단위 의존 명사가 직접 오면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27억**'처럼 끝수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 그 뒤의 단위 의존 명사 '원'을 띄어 써야 한다. '**전통시장 상품권 이 발행한 지 2년 만에 27억 원 이상이 판매되어**'로 고치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유통되어 가고 있는 만큼**,'은 '**유통되고 있는 만큼**'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는 '**높여나갈 계획이다.**'로 고치면 한결 간결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p>○○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에서는 2월 9일 ○○시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이주여성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설 맞이 한마당 축제' 의 장을 열었다.</p>	<p>○○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에서는 2월 9일 ○○시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이주 여성들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 주고 지역 공동체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설맞이 한마당 축제' 를 열었다.</p>

 보충 설명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함으로서**'가 아니고 '**~함으로써**'로 표기해야 올바르다. '**설 맞이**'가 아니고 '**설맞이**'로 붙여 써야 한다. '설'과 '맞이'는 두 개의 단어이지만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붙여 써야 올바른 표기가 된다.

'**지역 공동체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에서는 자긍심의 주체가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지역 공동체 주민이므로 ' 지역 공동체 주민으로서 지니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이라고 '**주민**'을 넣어 주어야 바른 표현이 된다.

'**축제의 장을 열었다.**'보다는 '축제를 열었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간결하다.

교정 전 교정 후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은 ○○○. ○○○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기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심각한 폐해를 널리 알려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것을 다짐하였다.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은 ○○○, ○○○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음주 운전의 심각한 폐해를 널리 알려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것을 다짐하였다.

 보충 설명

'지켜내기위해서는'은 '지켜내기 위해서는'으로 띄어 써야 바르다.
 '공감하였으며' 뒤에 다시 '~며'가 나오므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정도로 바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며,'가 아니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 바른 표현이다. '제고시키며'는 어려운 말이므로 '높여'와 같은 쉬운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고, '명사성 어근 + 시키다'는 잘못된 사동(使動) 표현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정 전 교정 후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끊이지 않는**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와 가정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지도도 용이하게 할 사업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 서비스는 **끊이지 않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지도도 용이하게 할 사업으로, **○○○○○** ○부에서는 **2012년까지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충 설명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안심 알림 서비스'로 표현하는 것이 위 문맥에 맞다. 또 알리는 일, 알리는 장비, 알리는 사람' 등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 '알리미'가 아닌 '알림'로 써야 한다.
 현재에도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이 아니고 '**끊이지 않는**'이 올바른 표현이다.
 '학교와 가정 사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간**'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올바르게 바르다.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주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

교정 전 교정 후

이에 따라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 대상으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충 설명

'**처분될**'이라는 딱딱한 표현보다는 '**판정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청은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10년 5월)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음	○○청은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10년 5월)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음.
---	---

 보충 설명

'계산하는데'에서 '데'는 어미가 아니고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하는 데에, ~하는 일에, ~하는 것에' 등으로 대체해서 문맥이 자연스러우면 그때의 '데'는 의존 명사라고 볼 수 있다.

교정 전	교정 후
------	------

○○○○청(청장 ○○○)은 웰빙·건강식이며 기능이 뛰어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잡곡 특별전시회 를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3주 동안 ○○청 내 ○○○○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청장 ○○○)은 건강식으로 기능이 뛰어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잡곡의 특별전시회 를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3주 동안 ○○청 내 ○○○○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보충 설명

'웰빙·건강식이며 기능이 뛰어나'라는 표현은 '건강식으로 기능이 뛰어나'로 바꿔 주는 것이 좋다. 웰빙과 건강식에서 의미의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잡곡 특별전시회'는 '잡곡의 특별전시회'라고 조사를 보충해 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건강식이며 기능이 뛰어나 각광받는 것'은 '잡곡' 이지 '특별전시회'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문장 구조상으로도 '잡곡'에 조사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교정 전	교정 후
------	------

WMO는 정확한 기상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재난 대비 등을 위해 과거 통신망을 최근의 혁신적 IT기술 환경변화 경향을 반영해 2003년부터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대용량의 기상자료를 신속하게 국제적으로 교환하게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 이에 따라 WIS 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 는 정확한 기상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재난 대비 등을 위해 2003년부터 새로운 정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적 IT 기술이 반영된 이 시스템으로 세계는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대용량의 기상 자료를 신속하게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관측장비구축(WIS) 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	--

 보충 설명

'WMO'와 'WIS'와 같은 외국어 전문 용어의 약어는 '세계기상기구(WMO)'나 '기상관측장비구축(WIS)'과 같이 번역해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 좋다.
 '과거 통신망을'이라는 표현은 이 말과 호응할 문장 성분이 없어 비문법적인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체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표현되어서 의미 파악에 불편하므로 두 문장으로 끊어 주면 좀 더 쉽게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정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적 IT 기술이 반영된 이 시스템으로 세계는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대용량의 기상 자료를 신속하게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교정 전	교정 후
------	------

<p>DTiMS는 〇〇〇〇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 국방기술정보서비스로서 국방R&D 기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모든 성과물 관리는 물론, 이를 위한 동향 정보와 국방 기술 인력 정보, 해외 기술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p>	<p>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는 〇〇〇〇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 국방기술정보서비스로서 국방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의 모든 성과물 관리는 물론, 이를 위한 동향 정보와 국방 기술 인력 정보, 해외기술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p>
---	---

 보충 설명

'DTiMS'나 'R&D'와 같은 외국어 전문 용어의 약어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나 **'연구·개발'** 등으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괄호에 넣어서 병기하는 것이 맞다.

교정 전	교정 후
------	------

<p>궁궐의 봄꽃은 창덕궁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의 생강나무가 3월 17일경 개화하여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다.</p>	<p>창덕궁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단의 생강나무가 3월 17일경 개화하여 궁궐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다.</p>
--	---

 보충 설명

'**궁궐의 봄꽃**'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옴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뒷부분으로 돌러서 '**궁궐의 봄소식**'으로 바꾸면 훨씬 간결해진다. '**봄소식**'은 붙여 쓰는 것이 맞다. '화계'는 어려운 용어여서 '**화단**'으로 고치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교정 전	교정 후
------	------

<p>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p>	<p>징병 검사 날짜와 장소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이 지정하지만, 본인이 직접 징병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p>
---	--

 보충 설명

간결하게 표현해야 의미 파악이 쉬우므로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와 같은 표현은 '**징병 검사 날짜와 장소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이 지정하지만**,'으로 바꾸면 훨씬 간결해진다.

교정 전	교정 후
------	------

<p>6월에 있을 지방선거 시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〇〇 검역원,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p>	<p>6월에 있을 지방 선거 시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〇〇 검역원, 지방 자치단체 등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 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p>
---	--

 보충 설명

'**감안하여**' 보다는 '**고려하여**'가 조금 더 쉬운 표현이다.

교정 전

교정 후

이번 수기집에는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영주권 병사들이 **군 생활 속에서 얻은 느낌과 생각에 대한** 진솔하고 다양한 이야기 32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총 2,000부가 **발간되어** 재외공관 및 국내 각 대학의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기집에는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 병사들이 **군 생활에서 얻은 느낌과 생각**, 진솔하고 다양한 이야기 32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총 2,000부를 **발간하여** 재외공관 및 국내 각 대학의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보충 설명

‘**군 생활 속에서 얻은 느낌과 생각에 대한**’보다는 ‘**군 생활에서 얻은 느낌과 생각**’이 훨씬 간결한 표현이다.

‘총 2,000부가 **발간되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는 ‘총 2,000부를 **발간하여**……에 **배포할** 계획입니다.’로 바뀌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교정 전

교정 후

해외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가 지난 2004년도에 도입돼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데, 올 **2월말** 현재까지 **해외영주권자** 711명이 **이제도를** 통하여 입영신청을 하여 이 중 504명이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상태로 매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자 대상 입영희망원제도’가 지난 2004년도에 도입돼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데, 올 **2월 말** 현재까지 **국외 영주권자** 711명이 **이 제도를** 통하여 입영 신청을 하여 이 중 504명이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상태로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

‘**해외영주권자들을**’은 ‘**국외 영주권자들**’과 같이 ‘해외’를 ‘국외’로 순화하고 단수 표현으로 고치면서 바르게 띄어 써야 한다.

‘**2월말**’과 ‘**이제도**’의 바른 띄어쓰기는 ‘**2월 말**’과 ‘**이 제도**’다.

‘**복무중이거나**’에서 ‘**중**’이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보도 자료
쓸 때
도움받을 곳

■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다.



■ 가나다전화: 1599-9979

- 상담 시간: 월~금, 9:00~18:00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가나다'에 문의할 수도 있다.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http://malteo.net>

- 우리말 다듬기 (국어 순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미 다듬은 말을 찾아볼 수 있다.



■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여 국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02) 2669-9752, 9729

■ 국어 온라인 강의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한글 맞춤법, 국어 순화, 공문서 바로 쓰기' 등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기획·편집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집필

- 이준석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인쇄 2010년 12월 24일

발행 2010년 12월 24일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75
